



Autumn 2020 Vol. 24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대응
Post COVID-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28:19

CONTENTS

Special Issue	
Post COVID-19 -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대응	22
한충희 목사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마음 박성주, 노영이 선교사
3	
Post COVID-19: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대응	25
한충희 목사	협력으로 이뤄가는 선교의 기쁨 한홍태, 한필연 선교사
7	
Post COVID-19: 선교의 창의적 접근	28
조용중 사무총장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김영미 선교사
12	
코로나19를 복음의 통로로	32
정갈렙, 박수아 선교사	신실하신 아버지와 한 걸음을 떼다 라함 선교사
16	
코로나19를 복음의 올타리로	
어원, 남미선 선교사	
Global Issue	Home Issue
20	36
하늘의 만나를 나누며	CPM? = Couple Party Moments!
John, Joyce 선교사	이사라 신임선교사
39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성렬 선교사	

〈통권 제 24호〉 발행일 2020년 9월 17일 발행인 이재훈 편집장 한충희 편집인 기획동원팀 디자인 인권앤파트너스
발행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3층
전화 031-336-1042 웹사이트 www.tim.or.kr 이메일 tim@tim.or.kr

Post COVID-19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대응



SPECIAL ISSUE

Post COVID-19: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대응 / 한충희 목사

Post COVID-19: 선교의 창의적 접근 / 조용증 사무총장

코로나19를 복음의 통로로 / 정갈렙, 박수아 선교사

코로나19를 복음의 울타리로 / 어원, 남미선 선교사



Post COVID-19: How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Mission Environment?

Post COVID-19: 선교환경 변화와 선교대응

한충희 목사 / TIM본부장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지난 5월 현지 선교사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에 기초하여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역환경의 변화가 무엇이고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새로운 선교정책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95개 유닛에서 응답한 것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6가지 중요한 새로운 사역의 주안점과 대응 방향이 도출되었다.

오프라인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영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소규모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공동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중심사역이 강조된다. 이것은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 사태는 교회 대부분의 사역을 소그룹 소규모로 나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회의 공동체 개념은 그 속성상 교회가 커지면서 원심력을 가지고 확대되어 나가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소그룹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선교사들의 고백이었다. 이제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쳤던 것과 같은 개인적이고 가까우며 일대일과 같은 세움이 있는 제자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자 양육

첫째, 온라인/디지털 사역의 일상화이다. 코로나 19는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사역이 일상화 되도록 만들었다. 예배를 비롯하여, 제자양육, 큐티나눔, 성경읽기 및 성경공부, 기도회, 구역예배, 교회강연, 교회내 여러 내부회의 등이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회의 숙제는 온라인으로

은 현지교회의 지도자/사역자로 추후 이양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역자/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도와 양육 그리고 예배 등 현지 선교의 포커스가 이전에는 특정한 개인이었다면 이제는 현지 가정이 하나의 사역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가 가져다준 가정 중심의 활동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며 하나님의 원리가 가정이기에 이러한 인도하심은 매우 바람직하며 가정 중심의 사역이 강조되었을 때 매우 긍정적인 선교사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missionarie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amily ministry.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되며 이양이 촉진된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행동의 제약과 비자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사역의 주도권이 현지인으로 넘어가게 해주며 처음부터 현지인 사역자와 같이 사역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이 향후 그 교회를 이양 받고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양의 문제는 적절한 환경/상황과 시기가 관건인데 과거와 달리 이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현지사역자와도 미리 협의하면 좋을 것이다.

이양의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조기이양, 충분한 여건 성숙 후 이양,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큰 공동체나 준 교단 성격의 연합체를 만들어 건실하게 한 이후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TIM 소속 현지선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도 더욱 강조되었다.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in missions have become more important not only in church planting, but also in evangelism, discipleship, vocat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aid.

교회개척은 물론, 전도와 제자양육, 직업훈련과 구호/개발 등에 있어서는 더욱 네트워크와 협력선교가 중요해졌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사역/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지교회, 선교기관 및 다른 한인 및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한국내 파송교회와 여러 선교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인식이다. 교회개척은 물론, 전도와 제자양육, 직업 훈련과 구호/개발 등에 있어서는 더욱 네트워크와 협력선교가 중요해졌다는 것이고 또한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난민선교를 위해서는 체류자격, 직업훈련과 교육, 인도적 지원, 난민교회 현지 지도자 동역, 온라인 소셜미디어 통한 사역 등 플랫폼 사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TIM 사역의 중심인 전략팀(ST) 사역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사역자의 이동이 제한되고 장기적인 사역지 이탈의 가능성도 크므로 같은 팀내에서 다른 팀원들의 사역을 대리하거나 백업해주는 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긴급구호와 현지 지역의 개발 등을 통해 총체적 선교와 회복사역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는 후진국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긴급구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슬람권에서 해오던 모스크 예배와 공개적인 기도와 라마단이 중단되거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의심하거나 혼들리는 상황도 감지된다 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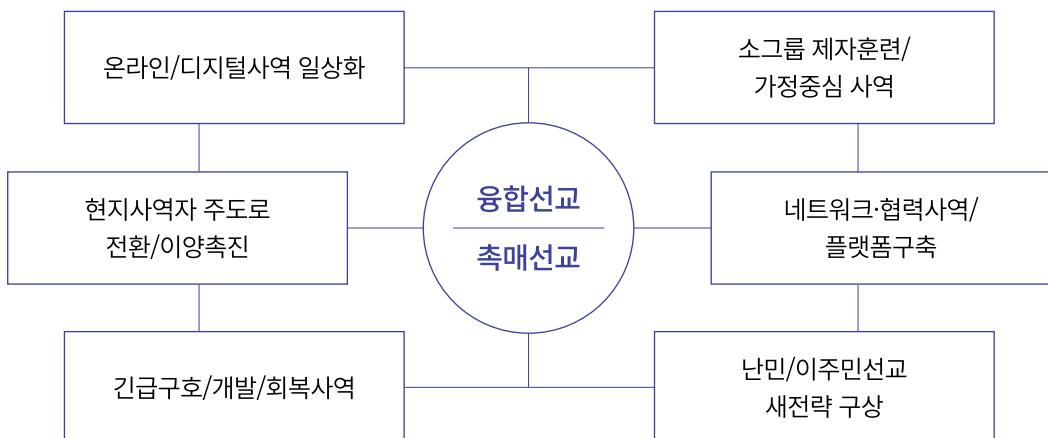
개발과 소득증대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도 선교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며 이러한 총체적인 선교는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즉 모든 피조세계가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에덴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선교의 궁극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다.

여섯째, 난민/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운 난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안겨주게 되는데 각국은 자국의 코로나 대응에 최우선적인 리소스를 투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하거나 케어하는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유엔과 EU/유럽 및 선진국들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터키나 요르단 레바논과 같은 나라들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에 대해 다양한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인도적 니즈(needs)들이 채워지며 그들의 연약한 마음이 복음에 대해 더욱 문을 열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복음적인 차원에서나 난민 사역에 대해 더욱 새로운 시각으로 전략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As refugees are provided with a variety of vocational education opportunities, and their basic humanitarian needs are met, it is more likely that their hungry and thirsty hearts will be more open to the Gospel.

난민에 대해 다양한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인도적 니드들이 채워지며 그들의 연약한 마음이 복음에 대해 더욱 문을 열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





Post COVID-19: Creative Approaches to Mission in Post

Post COVID-19: 선교의 창의적 접근

조용중 사무총장 / KWMA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는 가히 충격적이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지역 병 정도로 여겼으나 금세 중국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 대 확산,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Covid-19 실시간 현황판에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는 중이다. 지금은 전 세계 40개국의 나라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해 2차 대유행에 진입하였다.¹ 이러한 시기에 선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땅 끝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가로막혀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창의적인 선교적 사고를 시작 해야 한다.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인종 차별주의가 심해지고 있다. 각국에서는 자국 보호를 목적으로 비자를 거부하고 비행기 편을 취소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입국금지(104국가·지역), 격리조치(6개 국가·지역) 검역 강화 및 권고사항 (55개 국가·지역)이다.² 예를 들자면 네팔과 같은 경우는 2020년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되었고 국경이 봉쇄되었다. 태국은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전통적 선교의 방식은 선교 현지로 선교사가 직접 나아가 얼굴을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첫 출발부터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기술 발달은 공간 장벽을 넘어 이미 전 세계를 온라인을 통한 접속과 만남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의 과제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결과들을 선교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1. 코로나 실시간 현황판, 2020.08.04

2.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외교부, 2020.7.29



온라인 Zoom과 같은 영상회의나 Youtube를 통해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 중동의 어느 선교사는 Facebook을 통하여 무슬림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복음을 제시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도 한다. 대면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여 선교사역을 지속하며 오히려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찾아가 더 많은 영혼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는 전통적 대면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공간에서도 영혼을 얻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모든 방법으로 복음의 일꾼 된 삶을 살아내야하는 선교의 시기인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는 창의적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선교사 본인에게는 비대면 기술적 접근의 방법들이 습득되어야 하며,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발굴과 이주 난민들을 활용하여 국내 이주

민 사역 활성화를 위한 연결고리도 발굴해야 한다. 선교 현지에서는 접근 가능한 사람을 발굴하여 사역을 돋는 유산문화권 지도력 개발, 현지 리더십 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선교를 위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Missionaries in the Corona pandemic must have an attitude to win souls also in the ‘untact’ space as in the traditional face-to-face method.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는 전통적 대면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공간에서도 영혼을 얻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기본에 충실한 선교를 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몇 달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는 예배 참석 수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재정도 감소되었다. KWMA에서 실시한 선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에 머무르는 선교사의 41%가 한국교회로부터 후원금과 재정 후원이 감소되었다고 밝혔다.³ 예배 참석자의 감소는 특별히 청년 학생부의 감소가 뚜렷하게 두드러진다. 미래의 선교사 훈련생이 될 수 있는 대상층도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소수 정예일지라도 진짜 선교적 용사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재정의 부담이 큰 이벤트성 선교사역을 지양하고 본질적인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하겠다. 다음 세대 선교사 개발에 있어서도 모든 자원을 개발하여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평신도 자비량선교사, 전문인선교사, 비즈니스선교사, 디아스포라 현지 한인교회와 MK들의 선교적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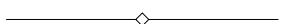
셋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돋기 위한 총체적이며 전인적 선교 방향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우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개인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제가 제약되고 소모임이 조심스러워졌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경배의 시간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관계적 단절과 모임, 예배의 제약은 심리적 불안, 고립과 우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전된다.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심리적 불안 상태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 holistic approach to mission is desired to help those in life crisis as a whol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in post COVID-19 we need to stand together with people in anxiety and fear.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돋기 위한 총체적이며 전인적 선교 방향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심리적 불안 상태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선교사 설문조사, KWMA, 2020

관계적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고립된 사람들은 더욱 관계에 목말라한다. 선교사가 먼저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회복된 관계가 교회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선교사에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함없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든든한 복음의 안정감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찾 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달되리라 믿는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인 10/40창 지역에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초교파선교 단체이다. 미전도 종족을 영적 자녀로 입양하고 복

음을 전하고 현지인 제자를 양육하여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TIMer를 축복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기를 기도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전방개척지역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된 오늘날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는 창의적으로 확장되고, 열린 마음으로 영혼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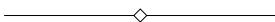
COVID-19 as a Conduit of the Gospel

코로나19를 복음의 통로로

정갈렙, 박수아 선교사 /

남아시아 F국

남아시아 F국은 2020년 1월 28일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것 이 현명한 방법인지 갑론을박 논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F국은 처음부터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고 뒤 이어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긴급조치를 내렸다. 도시 간의 이동이 금지되고 도시 내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교회 내 모임은 물론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자국 민 보호주의가 우선되며 외국인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이 퍼져가면서 외부 활동도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음사역이 불가능해졌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



긴급조치가 해제될 무렵, 협력하는 현지 교회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았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150개의 가정에게 1주일에 2번씩 쌀을 나누어 주는 ‘만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현장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손길이 필요하다는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7:7)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후, 본부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정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 즉시 본부에 재정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현지 교회에서 요청한 식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일로 우리 사역팀은 현지 교회를 도울 수 있고, 6주간의 ‘만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무료로 쌀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F국에서 평상시 쌀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곧 경찰로부터 추방의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역은 제재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400명 정도 접촉해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3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또한 쌀을 지

원받는 이웃들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목요 오전예배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참석한 노인들이 봉사 섬김과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롬10:14)

코로나19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롬9:25~26)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궁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호2:23)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워 복음을 전하기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졌으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었다.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예수님에 대해 닫혀 있던 마음을 열게 하셨다. 그들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무료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전염병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모두가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각박해진 상황 가운데 왜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와 섬기고 무료



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지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믿는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요13:35)

—————◊—————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슥4: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5:16)

우리 팀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현지인들과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많은 노력이 때로는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수 없던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열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COVID-19 has opened a new path for what I could not achieve with my will and efforts. When I follow the path that God opened not depending on my own resources, I can experience what He does.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수 없던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COVID-19 as a NET for the Gospel

코로나19를 복음의 울타리로

어원, 남미선 선교사 / 필리핀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얼어붙게 했다. 아이들의 학교는 휴교하게 됐고, 낮 시간에 통행이 금지되어 외출 허가증을 소유해야만 외출이 가능해졌다. 고령자와 미성년자는 24시간 통행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 금지되었고, 3주간 지역봉쇄명령이 내려졌다.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상황은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으로 돌입해버리고 말았다. 모든 지역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모든 사람은 ‘Stay Home(집콕)’ 하게 되었다. ‘집콕’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특히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룹 성경공부모임을 할 수 없게 되어 모임에 함께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은 잘 지내시는지.. 주일학교 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지.. 그립고 궁금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움의 파도가 고조된 어느 날 T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한 NGO 단체를 통해 구호품을 나누러 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나눠줄 포장된 쌀을 조금 공급받아 체체 자매와 함께 T 지역으로 달려가 보고싶었던 조합원 어르신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났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만남은 이산가족 상봉보다 훨씬 더 반가웠다. 집집마다 쌀 꾸러미를 들고 찾아가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모임이 그리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성경 잘 읽고 있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셨는지 긴급재난구호품 지원으로 또 한 번의 방문 기회가 주어졌다. 쌀과 캔 종류 식료품을 구입해 남편과 T 지역에 가서 나눠드리고 오는 날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마음속 한편에 외곽 농촌지역, 빈곤하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M 지역이 걸리기 시작했다. 마음속의 소원은 며칠 후 이루어졌다. 2차 긴급 재난 구호품을 지원받게 됐다. 야호 할렐루야! 신이 났다. 남편은 “이번엔 식료품과 야채 씨앗을 나눠주자”라고 했고 우리는 그들이 씨앗을 잘 심고 잘 관리하는지 지도하는 명목으로 가정방문도 하면서 만남의 접촉점을 계속 만들기로 했다.

씨앗을 사러 간 길에 많은 사람들이 화분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다. 남편은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휴교로 주어진 시간을 너무 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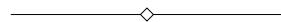




God has led us to communicate His Word in a new way during the pandemic. We will love this land and persevere. Because love is patient.

하나님은 우리를 팬데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잇몸으로 사는 삶은 어렵고 불편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을 더 많이 사랑으로 품고 인내할 것이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이다.

미하게 보낸다”라며 교회 일부 부지에 ‘버티컬 가든’(Vertical Garden)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학생들이 직접 씨앗도 심어보고, 관리하는 법도 배우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알아가고, 청년 때에 영적 삶에 대해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마4:13). 언제나 앞서 나를 이끌어주는 남편의 제안에 나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자”라며 동의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팬데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잇몸으로 사는 삶은 어렵고 불편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을 더 많이 사랑으로 품고 인내할 것이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이다.

**NO QUARANTINE PASS
NO ENTRY/NO EXIT**





Sharing the Manna of Heaven 하늘의 만나를 나누며

John, Joyce 선교사 / 남아시아 H국

저희는 “선교 H국” 비전으로 2020년 4월 한달 간 15명의 선교사 지망생을 발굴하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합숙훈련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갑자기 24시간 국가 봉쇄령을 내리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21일간의 국가 봉쇄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경찰들이 사정없이 몽둥이로 때리는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수도에서 일자리를 잃고 렌트비를 내지 못한 채 생계가 어려워진 수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모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 없는 이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견瘴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희를 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 하신다는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두려움과 끓임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인터넷으로 드린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풍랑을 거슬러 가려고 애쓰지 말고 풍랑에 몸을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TIM 본부와 이 나라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몸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 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하나?’ ‘굶주린 사람들의 제일 첫 타겟이 우리 같은 외국인 이라는데 어쩌지?’, ‘국내선, 국제선 모두 운항 금지 인데 어떻게 나가야하지?’ 등의 두려움과 끓임이 떠나고나니까 다시 이 나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잃고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 때마침 OCC 공동체에서 구제 현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현금으로 쌀과 식료품을 사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봉쇄가 끝나면 나누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전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식료품을 살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현지 목사님들과 연락해서 직업을 잃고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조사하여 하루에 10명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주지 못하고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98가정에 주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H국 정부는 21일 동안 국가 봉쇄를 풀지 않고 다시 19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어렵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맑아진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본부의 의견으로 한국 행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도로와 하늘길이 모두 닫혀 있기에 갈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 또 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 뉴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도 넉넉한 삶 되시기를 소망 합니다.



God's Children, Father's Heart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마음

박성주, 노영이 선교사 / 멕시코

그날은 아침부터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처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없어, 우리는 식당용 얇은 마스크를 두 개 덧대고 그 사이에 커피 필터로 고정시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둘기로 한 호셀린 자매와 마리아 자매를 만나 60가정이 먹을 수 있는 1주차 음식재료를 사서 패킹한 후 마을로 향했습니다. 음식 패키지를 받아 든 그들은 우리를 낯설어 했지만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며 한껏 기뻐해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멕시코 특유의 왜곡된 가톨릭 교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뻤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우리와 마을 사람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해준 ‘루뻬따 자매’가 있어 훨씬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 자매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음식 패키지를 받은 가정 중 10여 가정은 다시 돈을 받고 그 패키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나누어준 것을, 그들은 다시 돈을 받고 되판 것 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음식재료를 받은 사람들 중의 60%는 우리의 사역을 도와준 루뻬따 자매의 친척들이고, 이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도 접어놓고 헌신적으로 이 사역을 돋고 있는 마리아 자매와 호셀린 자매에게도 힘이 빠지는 뉴스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먼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미 엉질러진 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논 끝에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다른 마을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니다. 루뻬따 자매와의 동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나의 마음과 같이 기뻐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앞서 이번 일이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끼니를 거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의 절차나 계산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패키지를 팔아 이익을 차린 가족들도, 루뻬따 자매의 특권을 배경으로 패키지를 받아 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싶어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었고, 그 사람들 역시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제가 그들을 책망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행동은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그들을 향해 있는 한, 한낱 통로의 역할만을 하는 제가 그들에게 아쉽고 실망스러운 표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미래에는 또 다른 코로나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코로나가 오더라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느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일’로 끝내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이미 끝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일’과는 다른 것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 입니다.

When we, children of God, minister with the heart of our Heavenly Father, His love God will be revealed, not ours.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 입니다.



The Joy of Mission Accomplished Through Collaboration

협력으로 이뤄가는 선교의 기쁨

한홍태, 한필연 선교사 / 과테말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듯이 이곳 과테말라 역시 많은 사람들이 페닉 (panic)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남미는 하루에 400-500명씩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에서 현지인 인디헤나가 거주하는 곳은 깊은 산속 근처에 있는 외진 곳인 데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현지인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큰 과제입니다.

이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흰 천으로 된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도와달라는 표시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라면 곧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도 지난 3 월 중순까지만 해도 선교 센터와 시청에서 아카데미 수업과 침술 사역, 여자 교도소 미용 수업 등을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3월 17일 대통령령으로 이동 제한과 통금 시간이 생기고 통행증을 발급해야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지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현지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였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부에서 지원해 준 코로나 재난 기금을 받아 현지인들에게 풍성하게 물품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1차로 마스크와 복음 전도지를 각 가정에 방문하여 나눠주었고, 2차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약 75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엘떼할 주민들을 위하여 구호물품을 나누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엘떼할 시청에서 시청 직원들이 함께 나와서 도와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이 섬김에 더욱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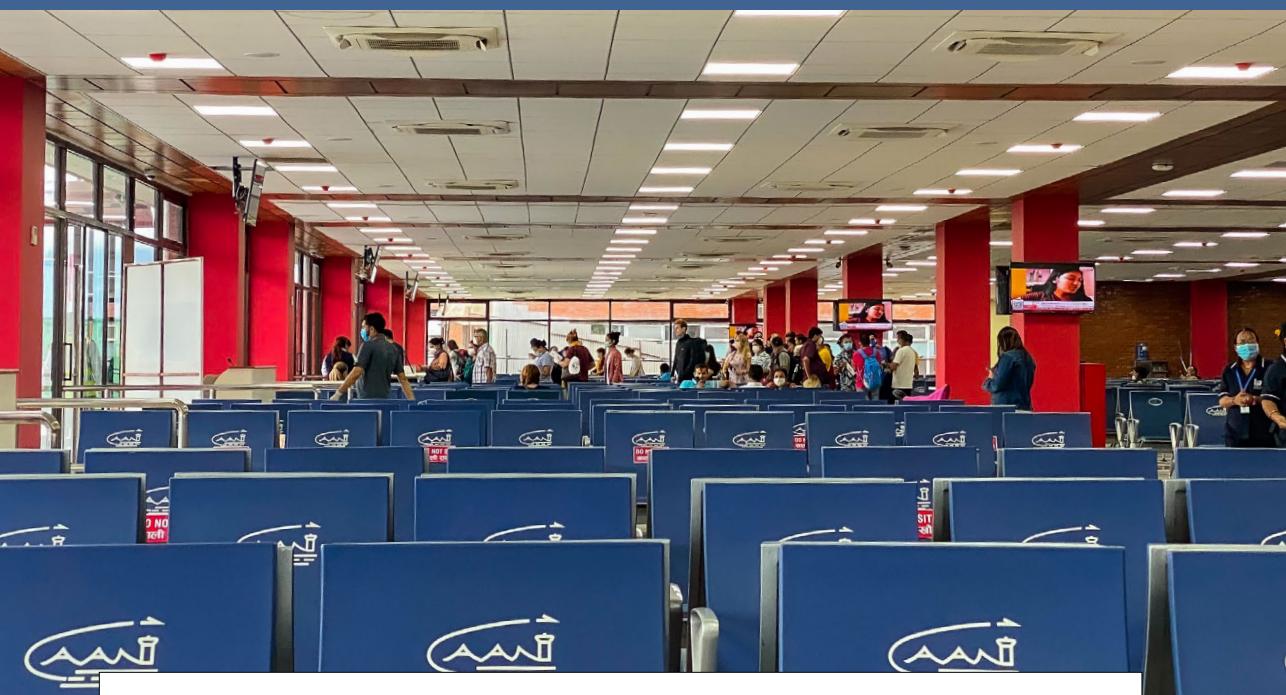




저희는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곳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알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 것임을 알기에 이곳 선교지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올려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We are learning that it is our mission to be with people on this earth.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알아 가고 있습니다.



The Love of Father Who Carries Me and Hugs Me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김영미 선교사 / 네팔

내가 거주하는 곳은 네팔의 중서부 남부(더라도)에 북인도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네팔건즈'이다. 그곳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육로로 16~20시간 걸려 이동해야 하는 먼 곳이다. 2~3월 초기에는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었지만 네팔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3월 중순경 네팔의 지역 봉쇄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뉴스와 소문들을 접하게 되었고, 마침 얼마 남지 않은 비자기간 문제로 본부와 상의를 하던 중이었다. 그때까지도 네팔은 확진자 1명이라는 공식적 발표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인도 국경 지역에 위치한 네팔간지에 감도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갑작스럽게 지역이 봉쇄되고 기간이 길어질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도와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은 이동과 비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에 본부와 상의 끝에 한국으로의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미 국제선 운행이 금지된 상황에서 3월 23일과 30일 단 두 편으로 정해진 특별 운항기의 좌석은 구할 수가 없었다.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네팔건즈에서 머물 곳도 없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위험한 일이었다. 차라리 남아 있겠다고 본부에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싱글 여성 사역자가 타지에서 홀로 위기의 순간을 지내는 것을 본부에서는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3월 21일, 본부의 설득으로 결국 카트만두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벌써 지역 간 유통으로 이동은 제한되었고, 국내선 이동은 22일부터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너무나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때 사순절 기간 성경 통독 중이었는데 21일 밤 눈물을 훔치며 말씀을 읽고 있던 중에 너무나 선명하게 계속 ‘지금 너는 일어나 내게 구하라’는 생각인지 음성인지 모를 외침이 나를 일으켜 주님 앞에 눈물을 간구하게 하였다.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마지막에 ‘만일 잠시 한국으로의 귀국이 주님의 뜻이거든 불가능한 한국행 귀국 항공권을 내일 이 손에 얹어 확인을 시켜 달라고 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다.

Capital ★ 10 pages Rs 5

Kanchanpur, Nepalgunj under indefinite lockdown

Hordes of Nepalis return home from Indian cities

Himalayan News Service
Dhangadi/Nepalgunj,
March 22

Coronavirus transmission

- The virus is mainly transmitted via the respiratory system and physical contact
- When an infected person coughs or sneezes, they spray tiny droplets that carry the virus
- A carrier without symptoms, who appears healthy, can also pass on the virus

The virus can survive outside the human body on different surfaces:

- On stainless steel up to 2-3 days*
- Cardboard up to 24 hours*
- Plastic up to 2-3 days*

As a precaution, keep more than a metre away from people

What about in the air?

One study says SARS-CoV-2 can survive for 3 hours as suspended particles in the air

Researchers tested this using a vapouriser to spray particles of virus into the air

But we cannot conclude from this that coronavirus infects people by remaining in the air after a sick person coughs

3월 23일 CGN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온 집안과 마음을 평안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떨치고, 믿음으로 간단한 짐 정리를 마쳤다. 잠시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한국에서 많은 부재중 연락과 메시지들이 와 있어서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카톡을 여는 순간, 볼을 꼬집어도 보았을 만큼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내일 오후 8시 한국행 항공권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본부장님의 배려로 항공권을 구할 수 있었다는 기적적인 소식에 그동안 혼자서 위기의 순간을 겪으며 소리도 못 내고 울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무엇보다 어젯밤 늦게 주님께서 시키신 기도와 응답 하심을 통해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3월 22일, 저녁 국내선 항공편으로 무사히 카트만두에 도착해 친구 선교사의 집에서 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신문 일면에 ‘네팔건즈, 깐짜 뿐 무기한 봉쇄’ 기사가 실려있었다. 너무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하심에 온몸이 감전된 듯 전율이 흘렀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날 저녁 8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서 짐을 부치는데 직원이 만석으로 인해 지정한 좌석이 안 되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항공기를 타고 다녔어도 비즈니스 좌석은 구경만 했던 자리였는데 정말 놀라웠다. 취침 시간이 되어 항공기 불이 꺼지고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특별한 좌석에 누웠을 때 자장가처럼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품에서 편안히 쉬어라.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다’. 사실 코로나로 일시 귀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내내 미안하고 불안했었는데, 나직한 아버지의 음성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잠들어 한국까지 안전히 올 수 있었다.

3월 24일, 새벽에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네팔 소식이 궁금해 뉴스를 확인했다. 24일 새벽 6시부터 네팔 국가 봉쇄가 시행된다는 기사에 마음이 내려앉았다. 지역 간 이동 금지,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금지에 이어 24일부터 네팔 전체 봉쇄와 30일에 특별 허가받은 대한항공 특별기까지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지친 심신으로 인천 공항에 막 당도하여 실시간으로 기적을 경험한 자의 얼떨떨한 감사와 함께 네팔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났다. 지난 나흘 동안 순식간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리고는 본부에서 마련해주신 안전하고 안락한 원룸에서 14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비록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이며 자발적인 격리로 현관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내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장소이자 시간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격리로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 갇힌 자가 되고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 참 자유와 쉼의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참 좋아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 때에, 의 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안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특별한 아버지의 은혜였다.

자가 격리를 마친 이후에도 김포 자택으로 돌아와 재택사역을 하며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화상 미팅을 통해 갈 수 없는 네팔에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돋고 있지만 어려운 때에 네팔과 네팔 사람들을 떠나온 미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상이 변하고 더한 고난으로 삶의 끝이 와도 내 삶에 주밖에 없음을,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와 감사를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을 기대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신명기1:31)



Take a Step with Faithful Father

신실하신 아버지와 한 걸음을 떼다

라함 선교사 / 중동 A국

저는 올해 5월 본국사역(안식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부로 한 텁 5년의 임기를 다 마치기에, 5월 귀국 일정에 맞춰 천천히 현장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2월, 중국과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갈때 관망했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제가 있었던 A국도 COVID19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 대한 항공노선만을 중지한 채 그 어떤 대비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도 조금씩 커지면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큰 위협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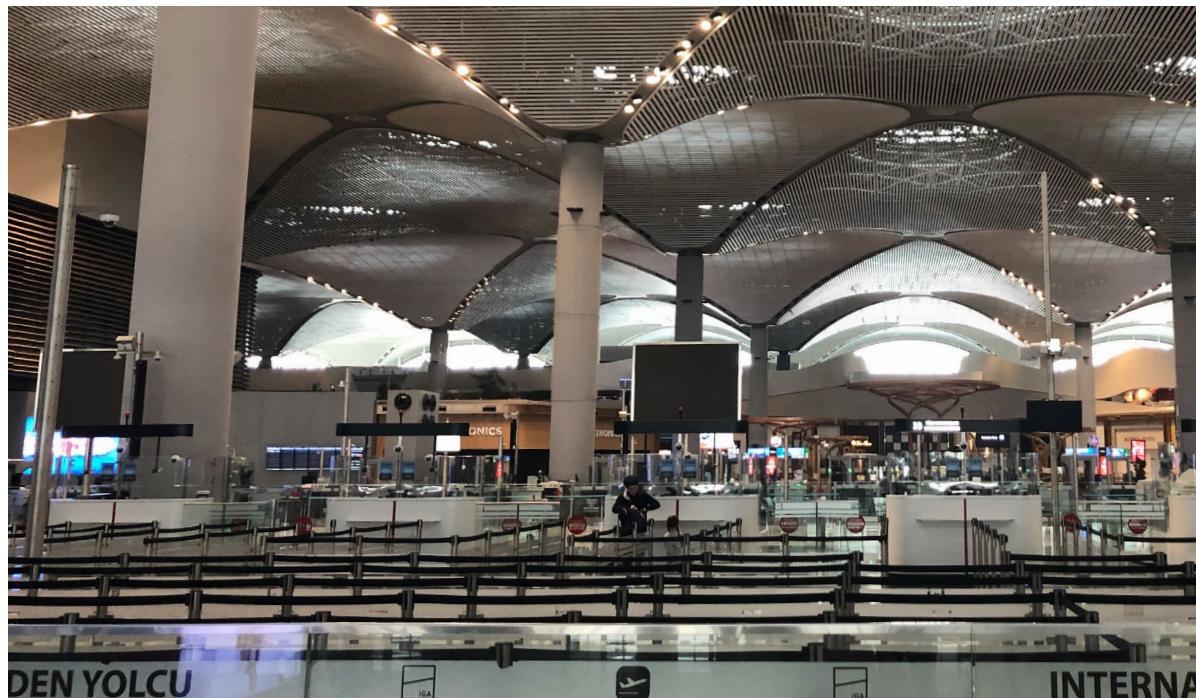
A국 정부는 스스로 코로나 청정국이라 자부했지만, 한국의 상황을 먼저 접한 저는 금방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며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등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 현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 하였습니다. 사망자가 나오자 휴교령을 내리고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의 영업이 중지되었으며, 크고 작은 모임의 사교활동은 물론이고 모스크 예배 마저도 중단되는 등의 강력한 폐쇄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예배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은 바로 가정예배로 전환했지만, 모든 사역과 만남이 중지되어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점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타 국가들처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일이 아니면 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지역간 이동 금지와 통행금지, 공항폐쇄 등이 있을 거란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단체의 외국인 사역자들은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도 더는 버틸수가 없어 본부와 의논하고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귀국을 결정하고 보낸, 3월 마지막 주는 분 단위로 속보를 체크하며 현지 뉴스를 챙겨보았습니다. 쿠테타와 테러가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난리는 아니었습니다. 미디어 상에서는 매일 정부 발표와 가짜뉴스가 뒤섞여 올라왔고, 매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간 짐을 싸고 푸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



하다가 결국은 떠나기 3일 전 현지 정부가 지역 간 이동 제한과 항공편 전면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게 셋다운 되었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발표를 주말 저녁에 하니 관공서에 물어볼 수도 없고, 항공사도 전화를 받지 않아 그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채 혼란스러운 이틀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길이 다 막혔다는 사실에 처음엔 웃음만 나왔고, 밤에 자던 중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약한 공황 증상이 나타나서 저 자신도 무척 놀랐습니다.

비행기 티켓 상 출발은 화요일이었는데, 하루 전인 월요일 아침까지도 비행기가 뜨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온갖 기관에 문의하고서야 항공편이 다행히 운항 중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항공사들이 다 막혔는데 국적 기도 아닌 그 항공사만이 운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당시 국내선 운항도 중단되어 제가 있는 도시에서 국제선 비행기가 뜨는 대도 시로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비행기가 뜬다는 소식을 알아냈고 오후에 같은 팀의 부인 사역자 한 분도 병원 진료를 위해 급하게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편도로만 6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타 단체이지만 같은 지역에 단기 자매선교사 한 명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자매까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쉼 없이 집을 정리하고 이웃



사역자들에게 남아있던 물건들을 급하게 나누어 준 후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경유지를 거쳐 약 32시간을 걸려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때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그 때의 한 주를 돌아 보면 정말 꿈같이 아득히 느껴집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롯이 혼자 결정하고 해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일처럼 함께 기도해준 중보자들과 위기 때 강한 능력을 보여준 동역자들 그리고 늘 든든한 TIM본부가 후방에서 지원해주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제 삶에 깊숙히 관여하시고 제 한걸음 한걸음을 이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선별 진료를 받고, 선교사 숙소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보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돌보심과 교회와 본부의 케어가 없었다면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유지에서 갈아탄 한국행 비행기에는 당시 가장 위험했던 유럽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기저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귀국을 망설였을 때 혼자 자가격리 할 수 있는 숙소를 내어 주시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에 짐을 들고 오르내리며 국가보다 먼저 꼭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해 주시는 등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펴준 TIM본부가 있어 무사히 자가격리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의 많은 사역자들과 온 민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구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최전방에서 싸우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복음 전파에 애쓰는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로 함께 싸워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보듬어 주고 격려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In the last week of March, every minute I checked the breaking news and watched the local news. Even when there were coups and terrors, it wasn't like this.

3월 마지막 주는 분 단위로 속보를 체크하며 현지 뉴스를 챙겨보았습니다. 쿠데타와 테러가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난리는 아니었습니다.



CPM? = Couple Party Moments!

이사라 / 신임선교사



전도를 시작하기 전 외국인들을 만나 전도한다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러웠지만,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 지금의 남편과 한 조를 이루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관계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재현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운 날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연구와 더불어 전도하며, 두 명이서 교회개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CPM(Church Planting Movement)을 ‘Couple Party Moments’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파~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의 시간’이었습니다. 터미널과 시장, 학교, 버스정류장 등에서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만나며 ‘최고의 행복’을 전하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가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전도하기도 싫고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행복을 나눠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도 별로 보이지 않고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전에 전화번호를 받아 놓고 연락을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우연히 만나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 전도를 나가기 싫은 차에 나갔더니,

**The last three weeks were
the “privileged time” that God allowed.
Because I had opportunities to meet
foreigners from many countries and
share 'the best happiness'.**

지난 3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만나며 ‘최고의 행복’을 전하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서 ‘잘 됐다’하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이전에 만났던 우즈 벡 친구를 만나게 되어 함께 차를 마시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다가가지 않고 있다가, 어렵게 말을 걸었는데 마침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던 네팔 친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자의 길을 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억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저 또한 오래도록 타지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힘든 상황을 공감할 수가 있었고,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터미널에 앉아있는 이름이 ‘지’라는 태국 여자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야 해서 일어나야 한다며 가려는 그녀를 붙잡고 1분만 시간 달라고 하며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녀의 힘듦이 느껴져서 울컥하며 기도를 끝냈을 때, 바쁘다고 금방이라도 가려던 그녀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남편 갖다주라고 했더니 기꺼이 받아 들고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아픔과 함께 하시며, 얼마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플 ‘파~뤼’는 끝이 났지만, 진정한 CPM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3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해 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그날’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Again, look through the Eyes of God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성렬 선교사 / 세네갈



본부와 선교사와의 관계를 매뉴얼상으로 ‘위탁관계’라고 정의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부관계’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바로 밖에서 수고한 남편을 위해 집에서 기다려주고 걱정해 주며 따스한 밥 한끼를 준비해 주는 아내처럼, TIM 본부도 우리 본국사역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맞이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TRT(Tim Re-builder Training)를 꼭 받아야 돼?” 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TRT는 1년이라는 본국에서의 일정을 마치는 제게는 분주했던 마음을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TIM본부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본부 스태프들의 그 부르짖는 목소리와 마음을 현장에서도 기억할 것입니다.

언젠가 흐르는 시냇가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물고기도 있었지만, 물줄기를 헤치고 반대로 올라가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물줄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TRT시간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해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의 시선으로만 보고 이해하였던 선교, 교회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훈련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돌아가면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TRT 훈련 중 북리 뷰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았던 재능을 사용하기란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씩 도전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TRT훈련은 선생님들이 다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모여서 마음을 정리하는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 : TRT를 통해서

R : 알게 되었어요

T : TIM 스태프들의 수고와 혼신과 마음을요

Gospel to all peoples! Churches to all tribes!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 America)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E-mail tima061204@gmail.com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537-0024 Osaka, Higashinari-ku,
Higashioibase, 3-chōme-9-11
E- Builder Building 3F
Tel +81-6-7220-9927